

광주·전남 선수단, 전국체전 사전경기부터 금빛 질주



광주, 태권도·펜싱·핀수영 등 금 5·은 11·동 13개 수확
전남도청 박소형, 펜싱 에페 금 등 전남 메달 20개 획득

BUSAN 2025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메달 행진을 이었다. 광주는 대회 개막에 앞서 진행된 사전 경기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수확했다. 광주대 김지우가 16일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여대부 -62kg에서 경희대 이도아(경기)에 0-2로 지면서 은메달을 기록했다. 남자 일반부 87kg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변길영(삼성에스원)은 울산시체육회 강상현과의 결승에서 0-1로 지면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앞서 광주는 지난 15일 진행된 여대부 -57kg에서 조선대 김민경을 앞세워 태권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는 사전경기에서 금 1, 은 2, 동 3개의 성적을 작성했다. 광주는 9월 30일 여자일반부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나온 광주서구청(강영미·최은숙·김수빈·정지운)의 금메달과 함께 전국체전 메달 행진을 시작했다. 이어 핀수영에서 연달아 금메달이 나왔다. 여자일반부 짝편 100m에서 양지원(광주시체육회)이 49초56의 기록으로 대회 2연패를 찍었고, 표면 200m에 출전한 양현지(광주시체육회)도 1분 31초 71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김지은은 여자 U18 표면 50m(18초 31)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4개를 얻었다. 16일 사전경기에서 남고부 임박은태영(-58kg·전남체고), 남대부 조아서(-74kg·용인대), 남자일반부 배운민(+87kg·한국가스공사)이 3개의 동메달을 추가하는 등 태권도에서 금 1, 은 2, 동 6개가 쏟아졌다. 앞서 15일에는 여자일반부 -67kg에 출전한 김잔디(삼성에스원)가 대구 대표 이진주(수성구청)를 2-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기록했다. 전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은 펜싱에서 나왔다.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에서 박소형(전남도청)이 전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한편 사전경기를 통해 위망업을 한 전국체전의 본격적인 열전은 17일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린다. 부산아시아드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의 경기가 23일까지 진행된다. 2000년 81회 대회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 8791명(선수 1만9418명, 임원 9373명)이 참가한다. 지난해(2만8153명)보다 638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는 50개 전 종목에 1439명(선수 1071명, 임원 378명)을 파견한다. 전남은 49개 종목에 1738명의 선수단(선수 1187명, 임원 551명)이 참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한국전력 럭비단이 16일 삼락생태공원축구장에서 대전럭비팀과 부산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8강전을 치르고 있다. 상대팀의 교체 선수 부족으로 92-12로 승리를 거둔 전남은 20일 인천(현대글로비스)과 준결승전을 치른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YMCA야구단, 안동시장배 어린이야구대회 휩쓸다

U-16 우승·U-11 준우승

광주YMCA야구단이 '2025 안동시장배 전국어린이야구대회'에서 주니어리그(U-16) 우승과 꿈나무리그(U-11) 준우승을 기록했다. 광주YMCA 주니어팀은 최근 안동드림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충남아산시를 8-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주니어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이자 안동시장배 초대 우승이다. 또 광주YMCA야구단은 '2021년 서울컵 유소년야구대회' 이어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이뤘다. 우승으로 가는 길은 점점의 연속이었다. 광주YMCA는 주니어리그 랭킹 1위 세종공공SC와 7-7 무승부를 거둔 뒤 강남도곡에 4-3, 태백시에 5-4로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2승 1무로 예선을 통과한 광주YMCA는 KT위즈와의 준결승에서도 7-6, 1점 차 승리를 기록하면서 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황석현이 주니어팀 최우수상(MVP)을 수상했고, 김지원은 우수상 주인공이 됐다. 우승을 이끈 김경훈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2025 안동시장배 전국어린이야구대회'에서 주니어리그(U-16) 우승과 꿈나무리그(U-11) 준우승을 이룬 광주YMCA야구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YMCA야구단 제공>

꿈나무 팀은 대회 결승에서 송파구마인볼에 5-8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꿈나무팀 강민율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경훈 감독은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다. 함께해준 학부모님들과 지도진, 선수들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끝까지 간다”…삼성, PO 1차전 선발 가라비토

오늘 한화 폰세와 맞대결…불펜·5차전 선발 등판 가능성 고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 선발 투수로 외국인 투수 헤르손 가라비토를 내세웠다. 예상은 빛나간 선택이다. 당초 선발 로테이션을 따르면 지난 9일 SSG 랜더스와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1차전에 등판했던 최원태가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최원태는 당시 6이닝을 2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고, 가라비토는 11일 SSG와 준PO 2차전에서 6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최원태는 가라비토보다 이틀을 더 쉬었고, 투구 성적도 더 좋았다. 삼성은 왜 최원태가 아닌 가라비토를 PO 1차전 선발로 선택했을까. 삼성은 준PO 4차전을 앞두고 5차전 승사 여부에 따라 PO 1차전 선발 투수를 미리 정해뒀다. 준PO 4차전에서 PO 진출을 확정하면, 가라비토를 PO 1선발로 내세우고 준PO 5차전이 열린다면 모든 투수를 쏟아내는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16일 “두 투수의 성향과 컨디션

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가라비토는 11일 88구를 던졌고 5일 휴식을 취했기에 PO 1차전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원태는 9일 등판 후 열흘 넘게 쉬게 되지만, 많이 쉬어도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투수”라고 설명했다. PO의 전체적인 흐름도 고려했다. PO가 5차전까지 펼쳐진다면 가라비토는 5일 휴식 후 PO 5차전에 선발 등판할 수 있고, 3·4차전에선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힘이 좋은 가라비토는 최원태보다 불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 전적도 가라비토가 최원태보다 낫다. 가라비토는 올 시즌 한화를 상대로 2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0.00으로 호투했고, 최원태는 2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했다. 삼성은 PO 1차전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삼성은 1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가벼운 팀 훈련을 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17일 열리는 PO 1차전을 준비한다. 한화는 PO 1차전 선발로 에이스 코디 폰세를 내세웠다. /연합뉴스

‘세계 최강’ 안세영, 세계배드민턴연맹 신임 선수위원 위촉

2029년까지 활동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활동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BWF가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 다섯명을 선수위원회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BWF 선수위원회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스포츠 정책과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돕는 공식 자문기구다. 규정 및 규칙 개정, 선수 복지 향상, 국제 대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BWF와 선수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으로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을 비롯해 도하 하니(이집트), 지아 이판(중국), 데보라 질레(네덜란드), 푸살라 V. 신두(인도) 등이 이름을 올렸다.

BWF 파타마 리스와드트라클 회장은 “BWF 선수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글로벌 스포츠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새로운 위원들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2025. 9.30 ~ 10.26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